

해남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 전남유일 선정

푸드플랜 연계 취약계층 바우처 제공...국비 10억 6,800만원 확보 중위소득 50%이하 중 신청자에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1년간 지원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6,800만원을 확보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서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지원 시범사업은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바우처를 1년간 지원하며, 지역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유통 매장에서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남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6,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산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해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우리도 원더우먼”

강진청자배 체조 경연대회 성료

‘2020 강진청자배 체조 경연대회’가 지난 2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2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회는 강진체육회가 주관하고 강진군체육회 주관하는 대회로서 관내 체조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승욱 강진군수,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 강진군의회 김명희, 서순선, 김창주 의원, 황호영 문화원장 등이 경기를 찾았다.

이승욱 군수는 “2주 전에 대회가 확정됐는데 짧은 기간 동안 일사불란한 팀워크로 강진 청자배 경연대회를 준비해 참가해 주신 23개팀 선수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 강진 지킴이에 적극 동참하며 예방 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경기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청년부, 장년부, 시니어부, 노년부, 경로당팀 등 23개팀, 26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특히 평균나이 70세 어르신들이 13팀이나 참가해 동호인들과 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강진군체육회 윤은영 회회장은 “전국대회이지만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강진 관내 팀만 참가하게 됐다. 3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청년부는 두드림과 열림팀, 장년부는 아침을 여는 사람들 팀, 시니어부는 신전주민자치센터 팀, 노년부 A·B는 도암주민센터 팀과 강진읍복지관 팀, 경로당부는 영풍마을 팀이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23개팀 모두에게 시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강진군체육회에서는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당일 체온측정, 방명록 및 방역 대상 작성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철저한 사전 대비 가운데 대회를 진행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 안양면, 마음 힐링 원예치료 추진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심신 안정 도모해 우울감 해소

장흥군 안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재)정남진 장흥노인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며 힐링 원예치료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10일 시작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마을회관이 자주 휴관되고 마스크를 써야하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도모해 우울함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강화와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사회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촌마을 어르

신은 “마을 경로당 사람들과 함께 예쁜 꽃도 보고 내화분도 손수 만들어 박수 치고 웃으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송남신 안양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개원 앞두고 주민설명회

비합숙 교육생 농가민박 적극 활용 유도



강진군은 지난 20일 도암면 굴동마을회관에서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개원 앞두고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승욱 군수를 비롯한 인근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 12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이전이 강진군으로 확정됐다. 이후 부지 7만6천㎡, 건물 1만4천㎡ 규모로 총 사업비 478억 원 투입해 2019년 1월 착공했다. 지역민의 깊은 관심과 협조 속에 현재는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날의 설명회는 교육원 개원시 고흥·곡성 등 원거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비합숙 교육생들이 가까운 인근 마을에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민의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우수 기관’

완도군은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완도군은 아이돌봄 사업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센터장 김혜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아이돌봄사 14명을 양성하여 총 50명의 아이돌봄사가 활동 중이다. 완도=김광수기자

완도군, 공직자 아이디어 발굴해 군정 발전 이끈다

한국판 뉴딜·포스트 코로나 대응·현안 사업 등 최종 25건 선정



완도군은 지난 23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2021년도 공직자 아이디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직자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현안 사업 등 분야별로 총 21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219건 중 1차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70건을 선정하였고, 2차로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실효성 등이 있는지 평가하여 최종 25건을 채택했다. 완도=김광수기자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모바일 지역 화폐 발행, ▲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온라인 마켓 운영, ▲지방 상수도 스마트 관물관리 인프라 구축, ▲육상 양식장 배출수 활용 소수력 발전 사업 확대 추진, ▲비대면 원격 처방 ‘해양치유 온택트’ 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군은 제안된 아이디어를 2021년도 추진 사업과 중장기 검토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아이디어는 군정 발전의 좋은 밑거름이다.”면서 “격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강진=김영일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